

NEWS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장·차관 등 주요 공직 국민 추천 대통령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부터 일주일간 새 정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들 널리 발굴하겠다”며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이 대통령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또는 이메일(전자우편)로도 접수 받는다. 국민 누구나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추천 인제는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페이스 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정부 국정 설계’서 계속

광주와 전남은 공통적으로, 이번 국정 과제 반영 과정이 단순한 대선공약 이행을 넘어, 지역 주도의 산업 전환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할 구조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행정, 현장 실무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약→국정과제→예산→입법’의 선순환 구도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구상을 공유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새정부의 운영 철학이 구체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책 연계의 적기”라며 “도정 핵심과제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과 전략적 설득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생은 65세부터 10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6.5 day기념행사’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과 내빈 및 1960년생 어르신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 해수욕장 내달 5일 순차 개장

도, 사계절 관광명소 목표...이용 활성화·안전 등 점검 27억 투입...편의시설 개보수·산책로 조성 등 시설 정비

전남지역 해수욕장이 다음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54개 해수욕장 개장이 오는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51일간 이뤄진다. 7월 첫째 주 여수, 함평을 시작으로 돌매 주 목포, 고흥, 보성, 장흥, 완도 신지명사십리, 셋째 주 해남, 무안, 영광 송이도, 진도, 신안, 넷째 주 영광 송이도, 완도가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날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 사계절 관광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올해 운영계획과 이용 활성화 방안,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협의회에는 해수욕장이 있는 12개 시군, 소방본부, 목포·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해수욕장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 명소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5% 많은 66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전남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보수, 그늘막, 산책로 조성 등 해수욕장 시설을 정비한다.

또 안전요원 300여명과 안전장비 4천여 대 확보, 수질 및 배사장 관리를 위한 환경 검사,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 시군에서는 관광객의 즐거움을 위한 이색 콘테츠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교

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갯벌 생물, 장어잡기 체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버스킹·음악회 등 각종 행사·이벤트도 운영한다.

해수욕장 연계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보성 울포 해수욕장에 첨단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시설을 갖춘 ‘해양복합센터’를 건립하고, 2028년까지 웅천 해수욕장 인근에 해양레저 랜드마크 ‘거점형 마리아나’를 조성하며, 2023년 개관한 해양치유거점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약산 해양치유요술,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연계해 해양치유거점으로서 육성할 계획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해수욕장이 여름철 단순 해수욕 한계를 넘어 사계절 국민 대표 관광지 자리매김하도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극까지 느낄 수 없었던 맛, 힐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니, 올해는 꼭 전남 해수욕장을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해조류 안전성 강화...세계시장 공략

4월기준 김 수출 1억4000만달러...미국·중국·유럽서 인기 중금속·미생물·방사능 등 검사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전남도가 김을 포함한 해조류 수출 품목의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식품 안전기준 강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김 등 해조류 수출업체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전남산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바이어,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목표다. 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행되며, 중금속, 미생물, 방사능, 인공감미료 등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지역 김 수출은 올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1억41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1% 늘었다. 이는 전남 김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중국(2998만달러·82.3% 증가), 미국(3845만달러·35.2% 증가)이

수출 확대를 주도했으며, 베트남(63.1% 증가), 독일(101.4% 증가) 등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전남 김 수요가 크게 늘었다. 또한 일본(2.8% 증가), 폴란드(8.2% 증가), 네덜란드(23.0% 증가) 등에서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 등 해조류는 수산물 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높은 핵심 품목으로, 특히 조미김과 마른김 등 가공도가 높은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 품질뿐 아니라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필수이므로, 검사비 지원을 통해 수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 대통령 차관 인사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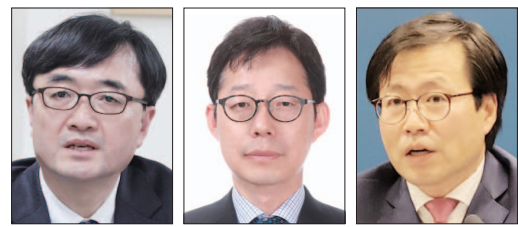
기재부 2차관에 해남출신 임기근

외교부 1차관 박윤주·산자부 1차관 문신학 임명

해남 출신으로 송원고를 졸업한 임기근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 2차관에 발탁됐다.

외교부 1차관에는 보성 출신인 박윤주 주아세안 대표부 공사가, 해남 출신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산자부 1차관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



임기근



박윤주



여한구



이형일



김진아



문신학

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2차관은 임기근 조달청장이 맡게 된다.

임기근 2차관은 해남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농림수산업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전문가로 손꼽힌다.

공공정책국장과 정책조정국장, 재정기획심의관도 역임하며 정책과 재정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 지난 2023년에는 재정 정책과 관리를 책임지는 재정관리관(차관보급)에 이어 조달청장에 올랐다.

외교부 1·2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 대표부 공사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양자외교를 총괄하는 박윤주 1차관

은 보성 출신으로, 외무고시 29회로 입부해 주미국 1등서기관, 주이란 참사관, 북미2과장, 주보스턴 부총영사, 북미국 심의관, 인사기획관, 주에틀렌타 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대미 외교에 전문성을 쌓아온 직업 외교관인 박 차관은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의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

문신학 산자부 1차관은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 부속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반도체시스템사업과, 원전산업정책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산업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책 기획력이 탁월하고 일 처리가 깔끔해 산업부의 정책 nerve가 생길 때면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스국 제정제연구소 선임위원을 낙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중단

남은 위증교사·대북송금·법인카드 재판부도 중단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전판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2건이 임기 종료 전까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2심,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법원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을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등 모두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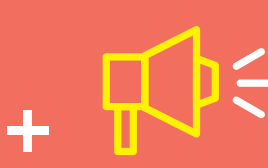
이주|광주버스방송

**월 8만원으로
버스에 광고가?!**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높은 주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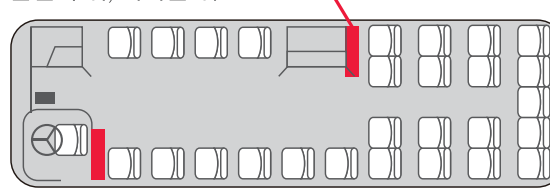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이주|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062) 223-6511